

제주RISE 창업지원 성과 관리 ‘구멍’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현직 교원 창업 지원 성과 포함돼 적절성 문제 제기
학생 창업 지원은 졸업 후 추적 관리에 어려움 많아
“성과 산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주요 과제인 창업지원에 대한 성과 산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RISE 사업을 통해 지원한 창업기업 가운데 현직 대학 교수가 직접 설립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다, 학생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졸업 후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RISE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와 도비를 합해 총 299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대학교와 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수행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RISE 사업의 여러 분야별 과제 중 주요 과제인 창업지원에 대한 성과 산정과 사후관리 방식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주RISE센터로부터 받은 ‘제주RISE 사업 1차년도(2025년도) 수행대학 창업기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RISE 사업을 통해 창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제주대학교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라대학교 3곳, 제주관광대학교 2곳 순이었다.

특히 제주대가 지원한 14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은 현직 교수 등 교원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지원 창업 기업의 약 43%가 현직 교원의 창업 기업인 셈이다.

교수의 창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RISE 사업이 대학이 보유한 인적·기술적 역량과 연구성과를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수가 자신의 연구성과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는데다,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 창업지원과 교수 창업을 단순히 동일한 ‘창업기업 수’로 집계할 경우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교수가 창업한 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가 대학 내 단과대학 연구실로 기재된 경우도 있어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발전이라는 사업 목표를 연구실에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학생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과제로 꼽힌다. 학생 창업기업은 대학 자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수상한 동아리팀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창업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폐업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순 창업 실적에 그치지 않고 창업기업의 생존 여부와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2면으로 계속

알림

2026 JDC와 함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한라일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함께 올해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를 총 2회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 **일시** : 9월 5일(토) 오전 10시~낮 12시

▶ **장소** : 한라일보 3층 회의실(제주시 서사로 154)

▶ **모집대상** : 20명 내외(초등학교 3~6학년, 선택수준 마감). 참가비 무료

▶ **신청기간** : 9월 4일(금)까지

▶ **접수방법** : 링크 (<https://forms.gle/WjaZkoAr6R3hdSYw5>) 또는 QR코드
*선택수준 접수인만큼 접수 후 꼭 확인 전화 또는 문자

▶ **교육내용** : 만장굴을 발견한 부총총와 꼬마탐험대: 햇불하나로 어둠을 밝히다

▶ **문의** : 010-4369-3011 ※2차는 9월 12일(토) 진행 예정

공동기획 : 한라일보 · JDC

제주 제2공항 사업비 1년 새 1/3로 ‘뚝’

정부, 실시설계비 2026년 150억→ 내년 52억 반영

“집행 부진 사업 지출구조 조정”
제주 관련 국비 2조3481억 반영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실시설계비 예산 5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150억원보다 100억원 감액된 것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출구조조정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1일 802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을 편성한 국토부는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 관행적 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의 예산이 감액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후속 절차인 실시설계를 위해 150억원을 편성할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은 감액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를 남겨 두고 있어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두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제주 관련 국비 2조348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관련기사 2면

이는 지난해 2조2342억원보다 1139억원(5.1%) 증가한 것으로, 제주도는 3년 연속 2조원대 국비를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7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9억원 증가했다. 부미현·이태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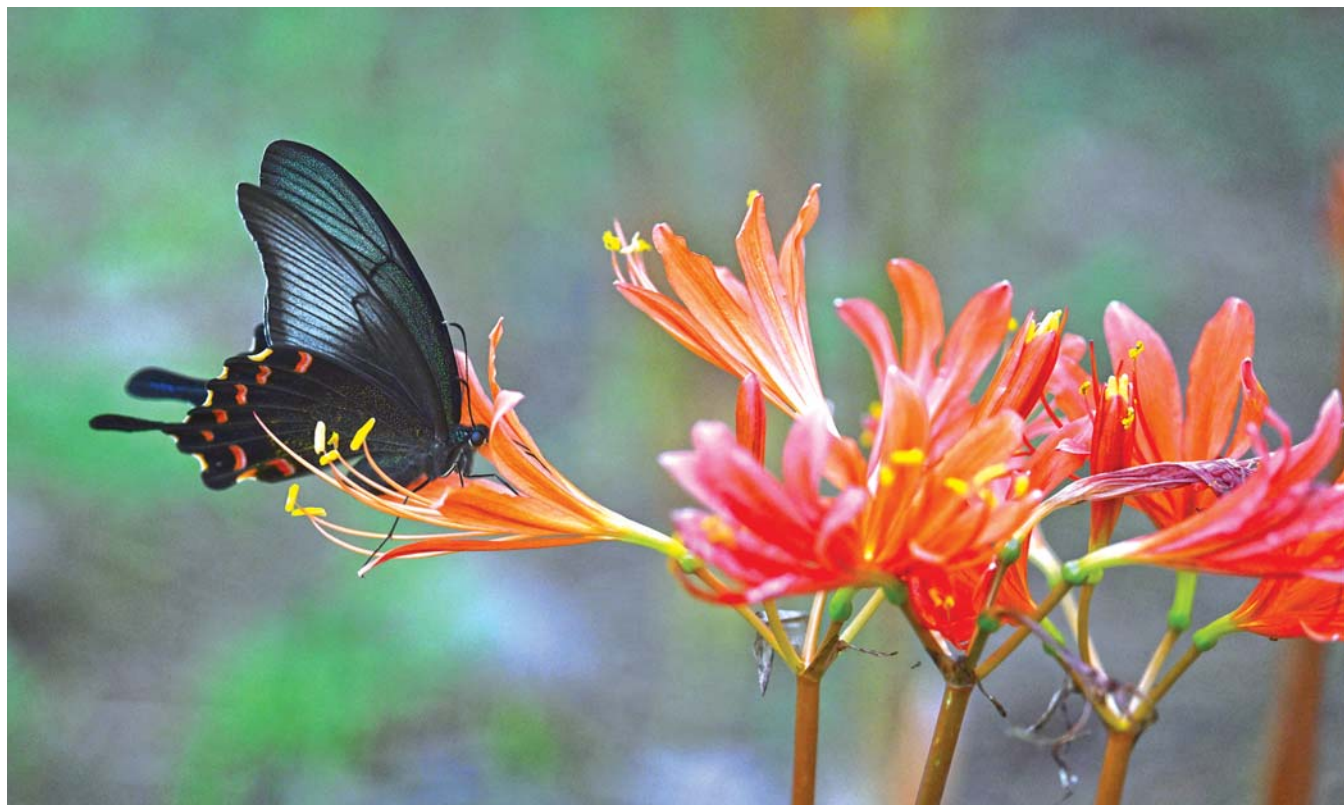
공공기관 통합공채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가 32명 규모의 세 번째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일정을 1일 공고했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명, 제주관광공사 2명, 제주테크노파크 1명,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명, 제주콘텐츠진흥원 1명, 서귀포의료원 1명이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선발 인력은 기획·인사·총무·재무 등 경영지원 분야와 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수질분석 정도관리 신청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법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문기술 분야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꿀 먹는 산제비나비 1일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에 상사화가 활짝 피자 산제비나비가 날아와 꿀을 따먹고 있다.

강희만기자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 구속 송치… 4면 / 출생아 수 아라동, 혼인 건수 노형동 최다… 6면

다함께
제대로
새롭게

제주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2026. 9. 7.(월) 09:00 - 9. 11.(금) 18:00

다함께 준비하는 JNU 100년, 제주로·미래로

학생 중심
최고의 교육환경

- 학생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장학 혜택(2025년도 대학정보공시, 2024년 기준)
 - 학생 1인당 장학금: 302만 원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 75.7%(1인당 장학금/평균 등록금)
 - 재학생 83.6% 장학금 수혜(재학생 수 8,981명 대비 장학금 수혜인원 7,516명)
- 국내 최저 수준의 등록금(2026년 기준)
 - 연평균 등록금 403만원(국가거점국립대 중 최하위)
-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생활관(2026년 기준)
 - 총 1,543실(1인실 356실, 2인실 1,187실)
 - 수용 가능인원 2,753명(재학생의 약 26% 수용)
- 최첨단 중앙디지털도서관
 - 스마트폰으로 출입, 도서 대출, 좌석 예약 등 원스톱 모바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42만권의 장서, 2,655석의 열람좌석, 그룹스터디룸 등 쾌적한 학습환경 제공
-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중 졸업생 취업률 2위 달성(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률 59.6%)
- 2025년도 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간호대학 국가고시 합격률 100%
- 교육대학, 초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률 2년 연속 전국 2위 달성(2026년 기준)

시아는 더 넓게,
꿈은 더 크게

- 전 세계 54개국 406개 외국대학과 학술·학생교류 네트워크(협정) 구축(2026년 기준)
- 교류수학 및 어학연수: 769명(최근 3년), 258명(2025년)
- 해외 인턴십 및 해외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호주), 디즈니월드 해외인턴십(미국) 등
 - 일본 IT 기업, 중국 청정에너지, ICT 기업 등 해외 기업탐방

원서 접수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bsi.jejunu.ac.kr>) (주)유웨이어플라이(<https://www.uwayapply.com>)

문의 064)754-3990~3995, 2043~2045, 8238, 3989, 3998

제주대학교
JNU NATIONAL UNIVERSITY